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8월 셋째주에는 특별히 여름휴가철과 광복절을 지나며 감사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 -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8월 셋째주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휴가를 다녀온 성도들과 아직 휴가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농작물과 과수원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지나간 이 시기에 더욱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로운 예배의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2 - 회개와 용서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8월 셋째주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휴가철을 보내며 혹시라도 방탕하거나 절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짜증내고 불평한 것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한 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들 가운데서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 속에서 새로운 적응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생긴 오해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3 - 간구와 축복의 기도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셋째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냉방시설이 없어 고생하는 노인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함과 안전을 제공해 주시고, 전력부족으로 인한 정전이나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은혜로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종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실업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8월 셋째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4 - 선교와 전도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만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8월 셋째주 이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국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각종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과 국가들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특히 여름휴가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학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단과 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분단된 조국이 하나님의 때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정착과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를 위해서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셋째주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활발한 선교와 전도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세한 예배 정보와 기도문은 [8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